

## 앙리 마티스 회화 이미지를 응용한 캐주얼 룩 디자인 연구

심 미 정\*·유 금 화†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패션디자인전공\*, 한성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 A Study on Design for Casual Look Applying Painting Images of Henri Matisse

Mi-jung Sim\* and Kum-wha Yu†

Dept. of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of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University

(2010. 3. 19. 접수일 : 2010. 5. 17. 수정완료일 : 2010. 8. 4. 게재확정일)

#### Abstract

People have more expectations for arts and design and accordingly, various artworks were combined with fashion to meet the consumer needs. As people live a decent life, the development of leisure activities and industry has a much effect on apparel. With this phenomenon, a free and active casual look is making progress centering around the practical apparel, pursuing diversified efficiency irrespective of a season and considering sensibility not formality. In this study, paintings of Henri Matisse were analyzed in every respect and were applied in apparel design with diverse color arrangement and a motif originating in the phenomenon of modern fashion design which leads to the integration of arts and design. Painting image and color of Henri Matisse were used. Sportive casual and cultural casual was used in design as well. Originality of its color in the paintings which were used as a motif is coming from Gauguin and Gogh. Henri had influenced to the next generation with pursuit of violent color.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rom this study. First, the color of Henri Matisse's paintings has a strong contrast effect. It combines notable violent color with a simple yet decorative motif. Therefore color from Matisse's paintings suit for apparel of marked individuality with its free color arrangement. Second, free and active image in Henri Matisse's paintings is easy to express efficiency and popularity. It accords with the feature of casual wear. Third, through adding a flowing curved line in Henri Matisse's paintings to materials and applying various colors putting into a curved line image to a rib section, a decorative effect which goes with the whole shape is obtained. This study presents possibility of emergence of unique design using free color arrangement and motif from the image of paintings and aims development of modern fashion design in accordance with modern fashion giving importance to the difference and sensibility by integration of modern garments and artworks.

*Key words:* Henri Matisse(앙리 마티스), casual look design(캐주얼 룩 디자인), patch-work(패치워크), applique(아플리케), strong contrast effect(색 대비 효과).

본 연구는 2009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 과제임.

† 교신저자 E-mail : yougold@hanmail.net

## I. 서 론

21C는 기술과 감성의 융합시대로서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 발달과 함께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기술력과 더불어 디자인, 컨셉, 색상, 브랜드 이미지 등 차별성과 감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소비자의 욕구가 변화하고 있다. 또한, 현대인들의 삶이 여유로워지면서 여가 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예술과 디자인 분야의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로 인해 현대인의 시각과 욕구가 다양화 개성화 되면서 패션은 인간의 내적 미의식과 생활 표현 양식으로 사회적, 경제적, 예술적 문화의 총칭으로서의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패션이 자기표현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현대인들의 경제적 수준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단순한 의미의 디자인이 아니라 패션을 감성적인 고부가가치로서의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고 이어져가고 있다.

따라서 패션디자인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패션디자인은 개성적인 자아를 표출할 수 있는 표현적인 기능까지 수행하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예술과 산업의 만남이 가속화 되어져 예술 작품을 제품디자인이나 광고, 패션에 직접 차용하여 아트 마케팅을 통해 제품을 고급스럽게 차별화하고 예술품을 소장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한다<sup>1)</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술과 디자인의 통합으로 이어지는 현대패션디자인 현상에 기인하여 앙리 마티스 회화를 조형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색채 배색과 모티브를 응용하여 의상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마티스 회화에서 보여 지는 단순화 된 모티브와 강렬한 색채를 응용하여 하위 문화의 영향을 받은 스트리트 패션으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편안한 스타일의 캐주얼 룩에 접목하여 제작하고자 한다. 의상 제작을 위해 회화의 이미지를 통한 색채 추출 방식과 다양한 색채 배색을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회화적 모티브를 최대한 적용, 구성하여 스포티브적인 캐주얼 룩에 접목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현상과 과거의 많은 예술 작품 등이 다양한 디자인 발전에 인스피레이션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현대의상과 예술 작품의 접목은 차별성과 감성을 중시하는 현대패션에 맞추어 자유로운 색채 배색과 회화 이미지의 모티브를 응용한 독창적인 디자인 창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현대 디자인 발전에 기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앙리 마티스 회화의 특성

앙리 마티스 회화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색채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예술계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파리에 정착하여 프랑스 미술계에 흐름에 발맞추어 발전해 나갔다.

앙리 마티스는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등의 여러 가지 19세기 미술운동의 영향을 받았으며, 크고 작은 모방과 창조를 통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가 20세기의 가장 독창적인 화가로 발전하였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정물에 기초를 두고 그 후 천천히 풍경과 인물로 발전해 나갔다. 그는 야수파의 지도자 위치에서 짧은 기간 동안 활동했으나 1906년 이후 야수파는 각각 해체되어 입체적인 인물상의 표현과 선으로 장식적인 리듬감을 창조하고 넓은 평면의 색조와 명암의 강렬한 대비 표현에 심혈을 기울였다.

앙리 마티스의 작품 세계의 변화를 그가 다른 화파의 영향력을 받은 초기(1890~1904), 야수파 활동 등을 통한 마티스 자신만의 작품 세계의 구축 기간인 중기(1905~1930), 색채의 결정체라고 바라보아지는 후기(1931~1953)로 하여 총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표 1>과 같다.

#### 1) 초기(1890~1904)

앙리 마티스 회화의 출발점은 사물 자체를 관찰

1) 태지연, “파울 클레의 회화작품을 응용한 남성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1.

하고 발견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의 회화는 전체적으로 명확하고 맑고 평면적이거나 절도감과 통일성을 동반한다.

그는 초기에 다른 당대의 화가들의 작품들을 모사하며 그들을 연구하여 자신의 작품 세계에 연결하기도 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을 창조해 나가기 시작했다.

앙리 마티스의 초기 작품들은 주로 당대의 다른 화풍들의 결합이었으며, 자신이 연구 분석한 작품들을 자신의 작품에 접목, 활용함으로써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했다.

앙리 마티스의 초기 작품은 밝은 색채와 어두운 색채의 공존 시기로 소재는 주로 정물, 풍경, 인물을 중심으로 두며 발전해 나간다.

## 2) 중기(1905 ~ 1930)

앙리 마티스의 중기 작품들은 밝은 색채와 뚜렷한 윤곽과 단순화된 형태감의 특징을 보이며 인상파를 거쳐 신인상파의 영향을 받아 야수와 시기를 맞게 된다.

강한 터치와 색채 대비의 표현 등을 통해 빛을 추구하고 동적인 화면을 추구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복잡한 배경과 간결한 인물과 사물의 표현은 빛을 재창조함으로써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준다. 선은 더욱더 유동적이 되고 빛의 묘사는 통일성을 부여했으며, 색채와 문양의 반복 등을 통해 자율성과 리듬감, 장식성을 추구하였다.

## 3) 후기(1931 ~ 1953)

앙리 마티스의 말기 작품을 보면 초기, 중기 작품의 소재들의 연속이다. 장식성, 직선적인 강렬한 형태감, 통일적인 리듬감의 결정체를 엿볼 수 있다.

명암과 양감, 원근법 등의 회화 표현상의 기법들은 배제하고 생동감을 살릴 수 있는 색채와 평면적 단순화의 결합이라는 특성을 나타낸다.

윤곽선이 색채와 색채 사이의 구분을 위해 나타

내기도 하지만, 색채와 색채 사이를 무선으로 남겨 두어 물체의 윤곽에 나타나는 빛을 효과적으로 나타냈다.

1947년에는 오려 붙이는 책이라는 타이틀 아래 제즈라는 작품집을 발간하게 되었으며, 뚜렷하고 과하지 않은 형태의 단순함과 다양한 구성, 강렬한 색채들이 자유로운 공간 속을 통일한다. 통일감 있는 리듬감과 뚜렷한 색채의 자연스러움은 마티스의 작품 세계의 결정체를 이룬다.

앙리 마티스는 20세기 프랑스 미술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 화가이다<sup>2)</sup>.

앙리 마티스는 야수파의 선구자로 후기 인상주의들의 화풍을 실험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자기만의 색채 표현 방식을 구축하며, 야수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료 화가들의 화풍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sup>3)</sup>.

마티스 회화에서의 표현의 가장 주된 수단은 색채였으며, 색채의 독창성은 고갱과 고흐 등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 마티스는 원색의 대부분을 구사하면서 선명한 색채의 표현으로 야수파를 발전시켜 나갔다. 그의 작품은 이전의 점묘파적 기법을 탈피해 거칠고 자유로운 터치로 바뀌었으며, 사실주의적이던 색채는 강렬한 보색 대비로 바뀌면서 야수파가 탄생하게 되며, 색채의 균형과 색의 단순화<sup>4)</sup>는 계속된다.

마티스 회화는 원근법, 명암법, 윤필법을 모두 버리고, 자연의 재현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감동을 색채만으로 자유분방하게 표현하고<sup>5)</sup> 리드미컬한 선적 패턴과 단색의 평평한 색 영역을 표현적으로 구성하는 독자적 양식을 발전시키면서 20세기 초 몇 년간 자신만의 장식적이고 표현적인 추상양식을 완성해 나간다<sup>6)</sup>.

마티스의 주된 관심사는 색채로 초기 작품을 보면 강하고 화려한 색채를 보색 대비의 강렬한 붓터치의 생생함을 가진다. 가장 적은 색채로 화려하고 풍부한 색채를 구성하여 서로 상반된 성격과 색

2) 박홍규, *시대와 미술*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p. 109.

3) 김계환, “앙리마티스 회화의 색채 표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 16.

4) 황석자, *프랑스 예술 문화 산책* (대구: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74), p. 102.

5) 박홍규, *op. cit.*, p.106.

6) 해럴드 오즈번, *옥스퍼드 20세기 미술사전*, 한국미술연구소 역 (서울: 시공사, 2001), p. 168.

을 종합시켜 표현하였다<sup>7)</sup>.

마티스의 색채는 색채 자체로 존재하면서 자신의 감정의 표현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마티스의 회화에서는 기존의 회화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명암, 양감, 원근법의 표현이 배제되어 색채의 생동감을 강조하였다.

마티스 회화의 색채는 화려하고 강하면서 구도에서는 조직화 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의 회화는 대담한 윤곽선을 사용하여 평면적인 색으로 변화되는 일본의 판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색 면에 의한 그의 작업은 통일적인 장식성을 가지며 단순화 된 경향을 나타내는 데 필연적이었다.

자유분방한 조형 감각을 지닌 마티스는 종이 오리기 작업을 통해 가위는 붓 대신에, 색종이는 튜브 대신에 사용하여 회화 요소로서의 평면적 성격을 부각하여 평면적이고 체계적인 회화 양식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게 하였으며, 그의 예술 세계에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했다.

앙리 마티스 회화의 단순화는 선과 색이라는 두 결합은 색채를 조각함을 나타낸다. 그는 정해진 화

면 속에 데생이라는 방법을 통해 한정된 색을 나타내며 공간감을 표현한다.

앙리 마티스는 회화 제작 초기부터 조각에 관심을 가지고 적합한 형태를 발견해 나갔다. 그는 채색과 동시에 데생이 행위를 질하는 회화적 방식과 오히려 조각적 방식을 나타냈다.

앙리 마티스는 오랜 기간에 걸쳐 특정한 소재와 인물 등을 기호화하여 다른 작품에서 반복, 재현하였다. 그는 추상적인 형태로 구도를 설정하고 문양을 기호화하거나 결합하는 방식으로 화면상의 자율적인 리듬감을 추구하였으며, 다양한 문양들은 연작의 소재로 사용되어지면서 이미지의 반복이라는 조형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회화는 평면에 의한 구성으로 드러나는 공간감을 찾고자 하였으며, 단순화 된 이미지 구성들은 대상의 불필요한 것들의 생략하여 더 이상 생략할 수 없을 정도의 요소를 창출하여 문양으로 탄생하게 된다.

또한, 그는 아라베스크적인 선과 이미지들을 장식적 요소로서 하나의 조형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초기에는 어두운 색채와 밝은 색채가 공존하다

<표 1> 앙리 마티스의 작품 세계

시기	작품의 특징	대표 작품
초기 (1890 ~ 1904)	- 인상주의, 신인상주의의 작품 연구를 통한 자신만의 예술 세계 구축 - 밝은 색채와 어두운 색채의 공존	
중기 (1905 ~ 1930)	- 야수파 형성 - 색채 대비를 통한 빛의 추구 - 야수파의 분해 - 장식적이고 단순화 - 붓에 의한 선묘의 단면화	
후기 (1931 ~ 1953)	- 통일적 리듬 추구 - 평면적 단순화 - 장식적 요소 추구 - 단순함과 색채 대비의 강렬함	

7) 박기태, “마티스 후기 회화의 특성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 21.

가 중기에 들어서는 확실한 원색이 나타나고, 후기에 들어서는 그 원색들이 아주 단순한 형태로 존재하며 색 그 자체만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앙리 마티스는 색채를 색채 자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감정의 표현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색채, 선, 단순성, 공간성, 장식성, 평면성, 반복성 등의 조형적 특징들은 하나의 공간 속에서 종합적으로 구성되어지고 있다.

마티스의 회화는 우리의 정신성을 높여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정시켜 주기도 하는 힘을 발휘 만큼 그의 그림 속에서는 선과 리듬이 색채와 공간이 그것의 자체의 자율적인 세계를 형성하면서 존재자의 의미를 부단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sup>8)</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앙리 마티스 회화라는 예술적 사조와 현대에 나타난 화려한 색채와 명확한 이미지를 띠는 팝문화를 접목하여 마티스 회화의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강렬하고 장식적인 색채와 단순한 선으로 이루어진 평면적인 요소를 지닌 모티브에서 인스피레이션을 얻어 최대한의 회화 그대로의 공간성, 반복성, 장식성 등의 조형적인 특징이 나타나도록 의상에 적용한다.

## 2. 캐주얼 룩에 관한 고찰

### 1) 캐주얼 웨어의 발전 배경과 개념

캐주얼은 편리하고 편하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라이프 스타일 현상으로 기존의 격식과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이다.

현대에 남녀 구분 없이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현대인들의 삶이 여유로워지면서 여가 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문화 발달 등으로 예술, 디자인 분야의 관심이 증폭되어 현대인의 의복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캐주얼 룩은 계절에 관계없이 다양한 실용성을 추구하며 격식과 형식보다는 감각을 중시하고 유행 주기를 떠나 실질적인 복장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범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을 추구하

며 자유로운 감성과 개성 표현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발전하였다.

캐주얼은 유행에 구애 받지 않는 자유로운 패션 스타일(non-fashion style)로 팝 문화와 진(jean), 오피아트, 히피, 앤드로지너스, 유니섹스 모드 등의 다양한 현상들이 접목되고 하위문화의 영향을 받은 스트리트 패션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캐주얼 웨어를 전통적인 베이직한 캐주얼 룩과 활동적인 스포티브적 캐주얼 룩, 문화 현상을 통해 발전한 캐주얼 룩으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 (1) 전통적인 베이직 캐주얼 룩

전통적이고 고급스러운 베이직한 캐주얼에는 트레이디셔널 룩(traditional look), 아이비 룩(ivy look), 프레피 룩(preppy look), 리센느 룩(lycenne look) 등이 있다.

전통적, 정통이라는 의미를 지닌 트레이디셔널 룩은 클래식 이미지에 속하며, 보수성이 강한 캐주얼 룩이다. 영국의 브리티쉬 트레이디셔널(British traditional)이 미국에 옮겨져 아메리칸 트레이디셔널(American traditional)로 발전하였으며, 1979년부터는 일본에서 뉴 트레이디셔널(new traditional) 룩으로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트레이디셔널 룩은 유명 브랜드를 즐기는 상류 여성의 보수적인 스타일에서 시작되어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현대인에 맞는 패션 스타일로 발전했다. 현재 폴로, 빈폴, 버버리 등이 트레이디셔널을 유지하며 다양한 세컨 브랜드 등을 발표하며 다양한 캐주얼 룩을 선보이고 있다.

미국의 명문 대학교와 영국의 명문 대학 등에서 발전한 아이비 룩은 심플하고 엘리트한 대표적인 스쿨 룩이다. 베이직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너무 자유분방하지 않은 단정한 스타일이다.

아이비 룩에 현대적인 엘레강스적 요소를 더한 심플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의 의상을 프레피 룩이라고 한다. 프레피란,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 고교에서 수업을 받는 양가의 자녀를 일컫는 말로서, 단정하고 클래식하면서도 정돈된 활동성을 보여주는

8) 박래경, *세계의 미술: 마티스* (서울: 서문당, 1987), p. 110.

의상이다.

간소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리센느 룩은 리세 룩(licee look)이라고도 일컬으며, 프랑스 여고생의 의상에서 발전되어왔다. 아주 기초적인 가디건이나 니트웨어들을 기본으로 단정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준다.

(2) 스포티브적 캐주얼 룩

밝고 건강함을 추구하는 활동적인 스포티브적 캐주얼에는 레이서 룩(racer look), 브리티시 스포츠 룩(British sports look), 스포츠 룩(sports look), 애슬리터 룩(athkete look) 등이 있다.

레이서 룩은 자동차나 오토바이 레이서들의 스타일을 모티브로 한 기능적인 스포티한 의상으로 활동적이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남성적인 느낌이 더욱 강화되어 강렬한 느낌을 준다.

브리티시 스포츠 룩은 영국의 전통적인 스포츠인 골프, 승마, 헌팅 등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스

포티하고 귀족적인 스타일이다.




스포츠 룩은 기능성과 자유로운 활동성을 함께 도입한 것으로 아디다스, 나이키 등이 대표적인 브랜드이다. 과거에는 실용성과 활동성만 추구해왔다면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하게 발전되어 운동을 할 때만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외출복으로도 용이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발전하고 있다.

애슬리트 룩 또한 스포츠 룩의 일종이며, 스포츠 경기용 의복을 그대로 수용한 스타일로 스키복, 보드복 등으로 나타난다.

(3) 문화적 현상에 영향을 받은 캐주얼 룩

패션은 많은 문화적 현상과 모티브 등에 영향을 받아 발전되어 왔다. 문화적 현상에 영향을 받아 발전한 패션은 아주 방대하고 넓어 본 연구에서는 남녀의 사회적 활동 영역의 변화에서 나타난 유니섹스 룩(unisex look), 펑크, 룩 등의 음악적 인스피레이션과 기성에 반대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

<표 2> 캐주얼 룩 범위 분석표

	특징	트렌드 이미지	색채	디자인 스타일	적용 브랜드
전통적 캐주얼	- 베이직하고 심플한 디자인 - 유행에 구애받지 않음	- 트레이디셔널 룩 - 아이비 룩 - 프레피 룩 - 리센느 룩	블랙, 그레이, 브라운 등		폴로 빈폴 버버리
스포츠비적 캐주얼	- 활동에 용이한 자유로운 스타일	- 레이서 룩 - 브리티시 스포츠 룩 - 스포츠 룩 - 애슬리트 룩	블루, 레드, 청록색 등		FUBU 폴햄 E.X.R
문화현상에 영향을 받은 캐주얼	- 시대에 유행하는 하위문화를 수용한 다양한 디자인	- 유니섹스 룩 - 뉴웨이브 룩 - 스내피 룩 - 힙합 룩	그레이, 블루, 레드 등		유니클로 CK 테이트

난 뉴 웨이브 룩(new wave look), 많은 대중적인 음악과 디자인, 예술 등을 표방하여 나타난 스내피 룩(snappy look), 젊은이 사이에서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HIP-POP이라는 음악 장르를 통해 나타난 힙합 룩(hiphop look) 등이 있다.

유니섹스 룩은 남성이 여성적인 옷을 입고 여성이 남성적인 옷을 입는 앤드로지너스 룩에 반해 남녀 구분 없는 스타일로 슬림하고 세련된 느낌이 강하여 현대에 이르러서는 남녀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라기보다 남녀 누구나 입고 싶어 하는 감각을 갖춘 스타일이다. 과감한 디테일과 컬러풀한 색채가 여성복에 가깝게 디자인되어 스키니한 스타일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뉴 웨이브 룩은 미국의 앨빈 토플러 교수의 저서 ‘제3의 물결’의 제3의 물결이 패션에 들어오는 것에서 출발하여 클래식, 모던 등이 히피, 펑크 등과 함께 반영되어지면서 새롭게 발전한 스타일이다. 과거의 다양한 모드가 현대로 이어져 새로움을 창조하고 재해석한 표현 방식으로 상반된 모드가 함께 공존한다.

스내피 룩은 1960년대의 팝 패션이 포함되기도 하며, 힘찬, 씩씩한 의미를 지니고 발랄한 스타일이다. 1960년대의 예술양식인 팝 아트가 대중에 흡수되면서 패션에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 젊은 층이 중심이 되어 그래픽적 요소와 그래픽 디자인을 통해 현재까지 다양하게 적용되어 발전하고 있는 스타일이다.

힙합 룩은 힙합이라는 흑인 음악 장르를 통해 흑인들에 의해 발전한 하위 스트리트 패션으로 1990년대에 방대하게 발전했으며, 빅 사이즈의 상의, 하의와 금속 장식 등을 착용하는 스타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자유롭고 활동적이며 빅 사이즈와 과감한 프린트 등으로 현재까지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이렇듯 캐주얼 룩은 다양한 모드와 접목하여 현대에 걸맞게 무조건 편한 스타일이 아니라 개성이 넘치고 패셔너블한 스타일로 현재까지 다채롭게 발전하고 있다.

## 2) 현대패션의 캐주얼 패션 경향

현대에 남녀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문화, 대중매체, 라이프 스타일의 발달로 남녀 공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스포티브적 경향, 보더리스적 경향 등의 특성이 두드러져 다양한 문화적 현상과 사회적 현상에 따라 캐주얼 패션이 하나의 스트리트 패션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남녀의 패션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왔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여성다움이나 아름다움을 초월한 이성의 요소를 공유한 유니섹스 모드로 자리잡고 있다.

남녀평등이 지향되고 여성에 대한 사회의 태도 변화와 산업화 등은 이성간의 동질성에서 비롯된 남녀 동화 현상으로 남녀 공용 패션이 발전되었다.

현대에 대중 매체 발달과 대중문화 발달, 사회 활동 등은 습관, 사고 방식 등 생활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성 정체성의 모호함을 더욱 가중화하여 패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다양한 모드의 결합의 결정체로 볼 수 있는 캐주얼 룩은 중성성이 강한 남녀 공용 스타일의 스트리트 패션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그 시대적 배경에 있어 여성 해방 운동이 활성화 되고 개인주의가 강조되면서, 우주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적 자세의 새로운 시도와 영패션(young fashion)에 대한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sup>9)</sup>.

유행 사조가 복잡하게 표출되고 있는 캐주얼 웨어는 그 복잡성의 와중에서 청소년들에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스트리트 패션이다. 그 유행 요인을 살펴보면, 현대 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인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한 대중음악의 영향과 90년대 유행하는 힙합 가수들의 스타 패션 지향, 스포츠의 영향 등이 있다<sup>10)</sup>.

최근 보여 지는 청소년들의 복식은 하위문화가 상향 전파되는 패션이 텔레비전, 영화, 잡지,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상호작용하여 수평 전파되는 상황이며, 획일적인 추종이 아닌 동일한 의식에서 선택된다는 공통성이 있다.

9) 김지현,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포티브룩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15.

10) 이지현, “Street Fashion에 나타난 Hiphop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 39.

MTV 개국, 뮤직 비디오의 성행 등 시각적 요소를 갖춘 ‘보는 음악’의 등장 이후 가수들에게는 노래 실력 못지않게 외모, 패션, 춤 등의 ‘볼거리’가 중요한 인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sup>11)</sup>. 또한, 출판물의 발행이 대폭 늘어나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정보지가 패션, 레저, 영화, 음악, 인터넷, 여행 등 다양한 문화 정보를 구성하여 보급되어, 젊은이들의 개성과 문화를 반영함에 동시에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하는 매체 역할을 하고 있다<sup>12)</sup>.

또한, 스포츠 패션이 광범위하게 입혀지면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의 스포츠 웨어는 캐주얼 웨어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진다<sup>13)</sup>. 이는 스포츠 웨어가 1960년대 이후 다소 변화되면서 원래 스포츠웨어의 개념을 기본으로 한 일상복 뿐만 아니라 이브닝 웨어로 까지 착용되어지기<sup>14)</sup> 때문이다. 현대패션에서 보여 지는 스포티브 룩은 스포츠 패션 중에서도 일상복이나 타운웨어 등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복에 액티브 스포츠 웨어의 디자인 요소를 외형적 특징으로 하며, 특히 디자이너의 감성으로 재해석되어 트렌드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한 의복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최근 패션계의 신조어로 사용되고 있는 캐포츠(Character Sports Casual)는 패션성과 스포츠 감각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캐주얼 웨어로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구분되어 오던 복종의 범주로 분류되기 힘든 예가 된다<sup>15)</sup>.

캐주얼 룩은 계절에 관계없이 다양한 실용성을 추구하며, 격식과 형식보다는 감각을 중시하고 유행 주기를 떠나 실질적인 복장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평범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을 추구한다.

### 3) 캐주얼 패션의 특성

캐주얼은 편리하고 편하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라이프 스타일 현상으로 기존의 격식과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으로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캐주얼 룩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캐주얼 룩의 미적 특징 중 하나는 단순성이다. 단순성을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간소화하고 장식을 배제한 극도로 단순한 형태를 추구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조형 수단을 사용하여 간결하고 절제된 표현 양식으로 나타난다. 단순성의 조형은 명료한 대칭적 구조를 이루며, 직선적인 라인, 그리고 무지의 단색 직물이나 간결하고 단순한 직물 패턴이 특징으로 이에 대한 캐주얼 룩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기능성(Functionalism)

캐주얼 룩은 실용성·기능성을 고려한 단순하고 직선적인 실루엣을 추구하고 있다.

기능성은 비 장식성, 과거에서의 분리, 그리고 형태·비율·선·재질에 충실한 특징을 가진다. 캐주얼 웨어에서 보여 지는 기능성은 실질적인 기능의 역할과 활동성을 부여하기 위한 재료·형태·디테일·색상 등의 디자인 요소를 도입한 것으로, 이는 심미적인 이유로도 적용·발전시킨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기능성은 누구나 쉽게 다른 아이템과 조합하여 입을 수 있는 호환성과 혁신성을 특징으로 하며, 심미성과 더불어 활동성을 만족시켜 줄 만한 혁신적인 소재들을 사용한다.

소재의 선택에 있어 기능성 캐주얼 웨어에서 보여 지는 활동성을 고려한 면과 니트의 활용율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다트 없이도 인체의 자연스런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신축성을 고려하여 기능성 소재로는 라이크라, 고어텍스, 쿨 맥스, 마이크로화이버 폴리스, 그리고 면과 울 등을 주로 사용한다. 웨이스트 다트가 없는 평면적 패턴과 웨이스트 다트가 있는 경우에도 단순하고 기능적인 패턴 형태와 재단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캐주얼 패션의 기능주의는 소매에서 소매의 형태상, 소매산이 높은 원형 소매에 비해 드롭-라그

11) 최정호, 강현두, 오태섭, *매스미디어와 사회* (서울: 나남출판, 1997), pp. 323-324.

12) 김정연, “한국 청소년 하위문화에 나타난 스트리트 패션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 23.

13) 김지현,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포티브룩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5.

14) Charlotte Mankey Cakasibetta,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1988), p. 545.

15) 엄준희, “1990년대 이후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트렌드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20.



랑·돌먼 소매 등 다양한 소매의 활용이 나타나는데, 이는 편안하고 기능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캐주얼 웨어 디자인 경향에 의한 것이다. 또한, 기능주의 디테일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포켓과 지퍼, 그리고 벨크로 여밈 등을 들 수 있다.

## (2) 단순성

스포츠복 룩의 미적 특징 중 하나는 단순성이다. 장식을 생략한 심플한 스타일과 전체 라인을 살린 슬림한 실루엣을 특징으로 하며, 검정을 비롯한 모노톤과 브라운 컬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단순성은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간소화하고 장식을 배제한 극도로 단순한 형태를 추구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조형 수단을 사용하며 간결하고 절제된 표현 양식으로 나타난다. 단순성의 조형성은 명료한 대칭적 구조를 이루며, 단순하고 직선적인 라인, 그리고 무지의 단색 직물이나 간결하고 단순한 직물 패턴이 특징이다<sup>16)</sup>.

스포츠복·남성복·노동복에서 영향을 받아 장식성보다는 실용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많으며, 세퍼레이트 개념의 적용으로 착장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남성복 스타일의 여성복화 함에 따라 유니섹스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슬림한 실루엣의 유행은 동시에 스트레치 소재의 보급을 촉진시켰다. 어깨 폭이 좁아지면서 팔의 움직임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소재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는 미니멀리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스트레칭 소재로 원통으로 제작되어 바디 라인을 드러내는 미니멀리즘의 추구인 것이다.

## (3) 젊음의 추구

오늘날 패션은 자기중심적이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에 의해 창조되고 있고, 이들 청소년의 하위문화는 랩·낙서·스포츠와 관련하여 기성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계속적으로 출현시켜 왔다<sup>17)</sup>.

젊음의 추구는 루즈한 실루엣과 피트한 실루엣

이 다양하게 공존하며, 조화롭게 혼합되어 개성 있게 나타난다. 주로 진·가죽·비닐 코팅된 소재 또는 니트·스트레칭 소재 등이 사용되며, 다양한 컬러의 원색을 사용한다<sup>18)</sup>.

이들의 전형적인 의상으로는 헐렁한 바지와 박스형 티셔츠, 어깨에 둘러맨 가방, 스니커 등을 들 수 있다. 이렇듯 오늘날의 하이패션에서는 젊은이들이 즐겨하는 것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현대패션에 나타난 캐주얼 룩의 조형적 특징은 각각의 미적 특징이 각 품목에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 III. 작품 제작 및 해설

### 1. 제작의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미술의 첫 출발이며 순수하고 강렬한 색채의 추구로 후대의 색채주의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친 앙리 마티스 회화의 특성을 고찰하고 색채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대에 이르러 예술과 디자인의 통합으로 이어지는 현대패션 디자인 현상에 기인하여 앙리 마티스 회화의 색채 배색을 분석하고, 그 모티브를 응용하여 재구성한 의상을 제작하였다.

표현 기법으로 배색의 텍스타일 기법인 아플리케 기법을 중심으로 응용 개발하여 마티스 회화에서 보여 지는 강렬한 색채와 단순한 모티브를 적용하여 색채의 배색을 돋보이게 하고, 자유롭고 활동적인 스타일의 디자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마티스 회화에 있어서의 색채는 색을 면으로 보여주고 색채 자체의 장식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색채 대비를 통해 주목성을 강조하고 색의 단순성을 보여 준다.

마티스의 작품 중 강렬한 색채와 모티브의 단순성을 강조하여 사용한 작품을 선정하여 캐주얼 룩에 접목하여 의상에 도입, 재구성하였다.

작품 제작에 있어 마티스의 작품에서 추출한 색채를 접목하여 심플, 스포티 등을 작품의 테마로 하였다. 모직, cotton, span 중심으로 주로 아플리케

16) 이지현, op. cit., p. 69.

17)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92), p. 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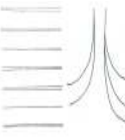
18) Ibid, p. 70.

기법을 사용하고 패치워크와 커팅 등을 통해 다양한 색채를 효과적으로 배색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직과 cotton, span의 소재를 포

갸와 겹침 그리고 배치를 통한 적절한 색채 배색과 작품에 나타난 모티브를 중심으로 디자인을 연구 하였으며, 다양한 소재 기법을 응용을 하여 유니크

<표 3> 작품 계획표

번호	구성	소재	기법	모티브	색채	응용 모티브	디자인
작품 I	짚업 자켓	모직	아플리케		Pale yellow, reddish yellow, deep pink, pale green, blue violet, black		
작품 II	후드 원피스	모직 cotton span	아플리케 패치워크 터크 커팅		Red, reddish yellow, blue		
작품 III	셔츠	모직	아플리케 패치워크		White, deep pink, reddish yellow, orange, blue, yellow green, black		
작품 IV	짚업 자켓+바지	모직 cotton span	아플리케 패치워크 터크 커팅		Green, red, black, white, blue, light green, pink		
작품 V	튜닉형 바지	모직	아플리케 패치워크		black, green, light green, brown, light blue		
작품 VI	후드 베스트	모직 cotton span	아플리케 패치워크		Blue, red, black, white, light yellow		
작품 VII	튜닉형 원피스	모직	아플리케 터크 커팅		Red, green, blue, orange, black		
작품 VIII	셔츠 원피스	모직 cotton span	패치워크 커팅		Blue, green, white, yellow, pale yellow		

한 느낌을 가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주로 자유롭고 활동적인 캐주얼 느낌으로 디자인하였고, 실물 작품은 총 8점으로 후드 자켓, 자켓, 바지, 튜닉 형 바지 등으로 구성 제작하였다.

#### 1) 작품 I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앙리 마티스의 1946년에 그려진 「the Knife thrower」의 색채를 추출해 내어 다양한 색채와 식물의 아라베스크적인 문양을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분할된 화면의 구성을 응용하여 라글란 소매로 직선적인 면을 분할하였고, 가장 단순한 아라베스크적인 문양을 응용하여 소재에 놓여진 듯한 패턴의 느낌을 강조하였다. 모티브를 응용하여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이루었다. 소재는 모직을 중심으로 섹소니, 헵코트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 2) 작품 II

1939년에 그려진 「Music」은 마티스의 작품에서 색채를 추출해내고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아라베스크적인 단순한 곡선 문양을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아라베스크적인 문양을 응용해 소재 패턴의 느낌을 강조하고 자유로운 곡선을 통해 패치워크 기법을 사용하여 면 분할을 했다. 소재는 cotton, span을 보조 소재로 사용하고, 모직을 중심으로 섹소니, 헵코트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리고 cotton, span 등을 사용하여 원색적인 느낌을 포인트로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매와 밑 끝단 등에 사용되는 리브단을 대신하여 터크에 컷팅 기법을 응용하여 개발한 소재를 접목하여 한 의상에 다양한 색채가 나타나도록 활용하였다.

#### 3) 작품 III

1952년에 그려진 마티스의 작품 「달팽이」에서 추출해낸 색채와 사각형의 모티브를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가슴의 전면과 후면에 사각형의 기하학도형과 타원을 응용하여 사각형의 모티브들의 흐름을 재해석하고 패치워크 기법을 통해 마티스 회화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소재는 cotton, span을

보조 소재로 사용하고 모직을 중심으로 섹소니, 헵코트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고자 하고 패치워크를 통해 면 분할을 하였다. 회화의 이미지에 나타난 다양한 색채와 모티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 4) 작품 IV

1947년에 그려진 「Icarus」의 연작으로 플라주의 회화로서의 성격의 강조한 작품을 추출해 낸 색채를 응용하고 모티브를 완벽하게 재현하고자 했다. 마티스의 작품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붉은 색과 노랑색, 파랑색 등의 원을 사용하면서 화면 전체를 단순화하며 밝고 뚜렷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모티브를 완벽하게 응용하여 패치워크 기법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매와 밑 끝단 등에 리브단을 대신하여 터크에 컷팅을 사용하여 개발한 소재를 접목하고 면 분할을 통해 보색 대비를 강조했다. 소재는 cotton, span을 보조 소재로 사용하고, 모직을 중심으로 섹소니, 헵코트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고자 했다. 짙은 자켓에 바지 말고도 일반적인 레깅스 등도 활용하여 스타일링 가능하도록 원피스형 길이로 제작하였다.

#### 5) 작품 V

1947년에 그려진 「Le Gerbe」의 사각 프레임 안의 부분을 모티브로 응용하고 색채를 추출해내어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다양한 유선형의 형태가 장식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앙리 마티스의 작품 중 하나인 열린 창 이미지를 적용하여 지퍼 부분을 직선적 배색을 통해 표현했다. 곡선 모티브를 응용하여 패치워크 기법을 사용하여 면 분할을 통해 보색 대비를 강조하고 원형을 응용하여 주머니에 포인트를 주었다. 주머니에 아플리케 기법을 응용하여 여러 가지 색채와 모티브가 드러나게 했다. 소재는 cotton, span을 보조 소재로 사용하고, 모직을 중심으로 섹소니, 헵코트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고자 했다.

#### 6) 작품 VI

1947년에 그려진 「Icarus」의 연작으로 플라주의 회화로서의 성격의 강조한 작품에서 추출해 낸 색

채를 응용하고 모티브를 완벽하게 재현하고자 했다. 마티스의 작품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붉은 색과 노랑색, 파랑색 등의 원을 사용하면서 화면 전체를 단순화하며 밝고 뚜렷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모티브를 완벽하게 응용하여 패치워크와 아플리케 기법을 사용하고 면 분할을 통해 보색 대비를 강조했다. 소재는 cotton, span을 안감으로 사용하고, 모직을 중심으로 색소니, 홉코트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고 활동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7) 작품 VII

1950년에 그려진 「the spray」의 색채를 추출해내고 모티브를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녹색, 노란색, 붉은색 등의 유기적인 곡선의 식물 모양은 반복적

인 이미지를 통해 하나의 구성된 의상을 표현했다. 곡선의 모티브를 응용하여 아플리케 기법을 사용하고 터크 기법을 통해 면 분할을 하여 제작하였다. 언밸런스한 전면과 후면의 기장을 적용하여 후면에 모티브들을 배열하여 자칫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의상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재는 모직을 중심으로 색소니, 홉코트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하여 튜닉형 원피스를 제작하였다. 긴팔 티셔츠, 레깅스 등으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8) 작품 VIII

1950년에 그려진 「masque japonneis」로 추출한 색채와 모티브의 느낌을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단



<그림 1> 작품 I.



<그림 2> 작품 II.



<그림 3> 작품 III.



<그림 4> 작품 IV.



<그림 5> 작품 V.



<그림 6> 작품 VI.



<그림 7> 작품 VII.



<그림 8> 작품 VIII.

순하고 자유로운 압축된 선과 색채로 단순함과 장식적인 효과를 강조하여 직선을 응용하고 컷팅 기법을 사용해 스트라이프 느낌을 주고 자유로운 유선을 통해 패치워크 기법을 사용하여 면 분할을 하였다. 소재는 일반적으로 캐주얼 룩에 중심으로 사용되어오던 cotton, span을 보조 소재로 사용하고, 모직을 중심으로 섹소니, 헵코트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리고 cotton, span 등을 사용하여 원색적인 느낌을 포인트로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매와 밑 끝단 등에 사용되는 리브단을 대신하여 터크 기법에 컷팅을 응용하여 개발한 소재를 접목하여 한 상에 다양한 색채가 나타나도록 활용하였다.

#### IV. 결 론

패션이 자기표현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현대인들의 경제적 수준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단순한 의미의 디자인이 아니라 패션을 질적으로 감성적으로 고부가가치로서의 수준 높은 디자인을 점점 더 선호하고 있다. 또한, 패션은 현대인들의 감성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서 예술, 디자인 분야의 관심이 증폭되었으며, 패션에 다양한 예술 작품 등을 접목하여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현대디자인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예술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패션디자인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예술과 디자인의 통합으로 이어지는 현대패션디자인 현상에 기인하여 앙리 마티스 회화를 조형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색채 배색과 모티브를 응용하여 의상디자인에 적용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기 위해 앙리 마티스 회화의 형성 배경 및 특성과 작품 세계를 알아보고, 색채와 모티브를 조형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앙리 마티스 회화의 대표적인 작품을 선정하여 색채와 이미지를 추출하고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회화 이미지에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아 의상디자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현상들이 접목되고, 하위문화의 영향을 받은 스트리트 패션으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캐주얼 룩을 전통적인 베이직한

캐주얼 룩, 활동적인 스포티브적 캐주얼 룩, 문화현상을 통해 발전한 캐주얼 룩으로 분류해 보았다.

의상 제작을 위해 회화의 이미지를 통한 색채 추출 방식으로 다양한 색채 배색을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회화적 모티브를 최대한 적용, 구성하여 스포티브적인 캐주얼 룩에 접목해 보았다.

다양한 디자인 사례를 수집하고 회화 이미지의 색채와 모티브를 적용하여 의상디자인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마티스 회화의 색채와 이미지를 적절히 사용함으로 심플함에 유니크한 느낌을 가미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였으며, 각 컬렉션 잡지와 영상 등을 통해 현대에 이르러 어떻게 어떤 디자인과 색채로 적용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마티스 회화의 작품에서 추출한 색채와 모티브를 캐주얼 룩에 적용한 의상을 제시하고, 심플, 스포티 등을 테마로 하여 모직, cotton, span을 중심으로 아플리케 기법, 컷팅, 터크 등의 응용을 통해 색채 배색 등을 표현하여 총 8벌의 실물을 제작하고, 작품 제작 의도와 방법을 기술하고 각 작품의 해설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에 디자인과 예술의 결합 현상으로 현대의상에 있어 회화는 발상의 모티브가 될 수 있으며, 색채와 회화 이미지의 모티브를 통해 다양한 디자인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티스 회화의 색채는 그전에 이어오던 자연적인 색채를 파괴하고 주목성이 뛰어난 강렬한 색채와 단순하고 장식성이 강한 모티브를 접목해 자유로운 배색과 배열로 의상에 접목하기 적합했다.

둘째, 캐주얼 룩은 전통적인 모드와 스포티브적인 모드, 문화적 현상에 의한 모드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많은 모드들이 통합되고 재해석되어 다양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의상디자인에서는 마티스 회화의 색채와 모티브를 적절히 배색함으로 심플함에 유니크한 느낌을 가미한 표현이 가능했다.

넷째, 일반적으로 소매와 아랫단 등에 리브단을 사용하는 것에 반해 터크 기법에 컷팅을 하는 방법으로 한 소재 개발을 통해 다양한 색채 배색의 효과를 더욱 더 부각시킬 수 있었다.

다섯째, 정해진 면적에 다양한 색채 배색은 한 디

자인에 여러 가지 색채를 응용하여도 복잡하지 않고 다양한 색채 표현의 매체로 디자인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여섯째, 의상의 색채 배색을 위해 회화의 이미지를 통해 색채 추출하여 다양한 색채 배색을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회화적 모티브를 최대한 적용함으로써 주목성이 뛰어난 의상을 제작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현상과 과거의 많은 작품 등이 다양한 디자인 발전에 인스피레이션 제공함으로써 현대의상과 예술 작품을 접목하여 차별성과 감성을 중시하는 현대패션에 맞추어 자유로운 색채 배색과 회화 이미지의 모티브를 응용한 독창적인 디자인 창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현대 디자인 발전에 기인하고자한다.

### 참고문헌

- 김계환 (2005). “앙리 마티스 회화의 색채 표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역, 이응직 (1999). *디자인 개론*. 서울: 태학원.
- 김영인 (2003). *현대인의 패션*. 파주: 교문사.
- 김익제 (1993). *패션 발상 트레이닝*. 서울: 정은.
- 김정연 (1997). “한국 청소년 하위문화에 나타난 스트리트 패션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02).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포티브 룩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기태 (1995). “마티스 후기 회화의 특성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래경 (1982). *세계의 미술: 마티스*. 서울: 서문당.
- 박홍규 (1997). *시대와 미술*.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 엄준희 (2003). “1990년대 이후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트렌드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난지 (1992). “형태 반복의 방법과 의미.” *월간미술* 3월호.
- 이지현 (1998). “Street Fashion에 나타난 Hiphop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선희 (1994). “마티스의 색면 추상적 표현에 관한 연구.” *생활문화예술* 17권 8월호.
- 조규화 (1992).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 조필교, 정혜민 (1999). *패션디자인과 색채*. 서울: 전원문화사.
- 조현주, 이광훈, 정혜민 (2006). *쉽게 이해하는 색채학*. 서울: 시그마 프레스.
- 최정호, 오택섭, 강현두 (1997). *매스미디어와 사회*. 서울: 나남출판.
- 해럴드 오즈번 (2001). *옥스퍼드 20세기 미술사전*. 한국미술연구소 역. 서울: 시공사.
- 황석자 (2001). *프랑스 예술문학 산책*. 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Cakasbetta, Charlotte Mankey (1988).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